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생명 기증 블루 앤 그린 데이를 맞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것을 뉴욕 주민들에게 권고

생명 기증 블루 앤 그린 데이를 맞이하여 뉴욕주 랜드마크에 파란색과 녹색 조명 점등

뉴욕주의 생명 기증 등록 기관에 66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장기 기증자로 등록

약 9,000명의 뉴욕 주민이 생명을 구하는 이식 대기 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에게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 기관(Donate Life Registry)에 등록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약속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 주민 약 9,000명이 생명을 구하는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의 생명 기증 블루 앤 그린 데이\(Donate Life Blue and Green Day\)](#)를 맞이하여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파란색과 녹색 조명을 점등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 주민의 친절과 관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자가 되는 것은 친절함을 보여주는 표신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합니다. 또한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기증의 달(Donate Life Month), 특히 블루 앤 그린 데이(Blue and Green Day)를 기념하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수 천명의 뉴욕 주민과 연대합니다."

점등되는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뉴욕주 교육부 빌딩(State Education Department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 메인 게이트 및 엑스포 센터(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뉴욕 주민들은 4월 16일 파란색과 녹색 의상을 입고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BlueGreenDay 및 #DonateLifeMonth 해시태그를 게재하여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는 행위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직원은 금요일에 파란색과 녹색 의상을 입을 것입니다.

미국 장기 조달 및 이식 네트워크(U.S.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OPTN)에 따르면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107,587명의 미국인 중 뉴욕 주민의 수는 8,700명이 넘습니다. 또한 OPTN에 따르면, 작년에 약 600 명의 뉴욕 주민이 필요한 장기를 적절한 시기에 이식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방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부(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이식에 적합한 장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17명이 사망합니다. 9분마다 대기 목록에 한 명이 추가되지만, 한 명의 기증자가 조직 및 각막 기증을 통해 8명의 생명을 구하고 75명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16세 이상의 뉴욕 주민은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거주자의 43%가 등록 기관을 통해 장기 기증자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 기관(NYS Donate Life Registry)에 다음의 온라인 옵션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생명 기부 등록부(NYS Donate Life Registry) 웹사이트 - www.donatelife.ny.gov
- 뉴욕주 차량관리부(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웹사이트 - dmv.ny.gov

"로렌법(Lauren's Law)"에 따라 DMV 이용자는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갱신 신청서의 기부 섹션을 작성하여 장기 기증자로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9세에 생명을 구하는 심장 이식을 받은 록랜드 카운티 거주자인 Lauren Shields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투표에 등록하는 뉴욕 주민은 유권자 등록 양식 또는 온라인 <https://www.elections.ny.gov/NYSBOE/download/voting/voteregform-eng-fillable.pdf>에서 해당 섹션을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찾고 있는 뉴욕 주민은 [뉴욕 보건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NY State of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도 등록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관리부는 또한 인식을 높이고 중요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 기증(Donate Life) 맞춤형 번호판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이와 같은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할 때 지불하는 연회비 20달러는 장기 기증 및 이식 연구와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라이프패스 잇 온 신탁 기금(LifePass It On Trust Fund)"을

지원합니다. 번호판은 차량관리부(DMV) 웹 사이트 <https://dmv.ny.gov/plates/life-pass-it>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뉴욕 주민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선 단체로 라이프 패스 잇 온 트러스트 펀드(Life Pass It On Trust Fund)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은 기부 및 이식 관련 교육 및 연구뿐만 아니라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장기 기증 등록자를 늘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은 2017년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여 뉴욕주 보건부(Health Department)에 모든 정부 기관, 뉴욕주 생명 기부(Donate Life NYS),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뉴욕주 생명 기부 등록부(NYS Donate Life Registry)를 통해 장기 기부자로 등록할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주무부(Department of Stat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등에서 다양한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장기 기증자로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건강 보험을 신청할 때 [뉴욕주 보건부 공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에서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되겠다는 결정은 진정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이타적인 결정 중 하나입니다. Cuomo 주지사가 주정부 기관 및 장기 기증 커뮤니티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뉴욕주에서 장기 기증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의 **Mark J.F. Schroed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장기 기증을 포함한 의료 시스템의 모든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더 많은 기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블루 앤 그린 데이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뉴욕 주민 수천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DMV는 이처럼 중요한 대의를 알리고 등록 기관에 잠재적인 기증자가 등록할 수 있는 창구로 활동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직원은 우리의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파란색과 녹색 의상을 입을 것입니다."

도네이트 라이프(Donate Life)의 **Aisha Tator** 뉴욕주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주는 커뮤니티입니다. 장기 및 조직 기부를 통해 모든 뉴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구하며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루 앤 그린 데이를 맞이하여 [뉴욕주 생명 기증 등록 기관](#)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사, 보건부, 차량관리부 및 의회 등 모든 파트너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